



兩眼은 磨滅로 仔細  
치 않으나 杏實形으  
로 開眼한 듯하다.  
鼻梁은 破損되었고  
口唇은 一字로 담은  
모습이 微笑가 터져  
나온다. 兩볼과 턱  
은 豐滿相을 보이고  
柔和한 慈悲가 넘쳐  
흐른다. 頸部는 三  
道の 層節이 뚜렷하

다. 通肩法衣를 着하였는데 胸部에서 U字形을 짓고 그 안으로 裙衣의  
매듭이 보인다. 衣紋은 兩腕에서 소매가 兩側으로 垂下되고 그 안으로  
는 腹前에서 脚部까지 十一個 波狀 弧線으로 주름져 내려갔다. 모두 溫  
柔優麗한 彫法이다. 埋沒部分을 파헤치고 調査하였으나 겨우 위와 같은  
衣紋을 알아냈을 뿐 足部와 臺座 等은 調査가 不可能하였다. 左手는 내  
리고 右手는 들어 現掌하여 與願施無畏의 通印을 보이고 直立正視하였  
으니 如來立像인가 하며 彫刻手法으로 보아 羅末麗初를 前後하는 所作  
으로 推定된다.

實測值(cm) 總高(地上高) 二四〇 肩幅 七五 頭部長 四五 頭部幅 三五  
耳長 三〇

### 二、塔里石造佛座像

槐亭里石造如來立像이 있는 곳에서 約二km 西南方 塔里「부처골」에  
寺址가 있으니 既往에는 石塔과 石佛이 殘存하여 있었다는데 現在는 塔  
은 없어지고 石佛만 남아 있다. 「塔里」라는 里名은 石塔이 있었음으로  
名稱한 것이요 「부처골」이라 함은 石佛이 있음으로써 불리우는 것이다.  
골짜기 一帶가 寺址로 瓦片이 散在하고 있고 발가운데에 土壇을 만들고  
그壇上에 石造佛座像이 安置되었다.

石像은 螺髮이고 肉髻가 있었으나 現在는 破損磨滅로 分明치 않다.  
兩耳는 耳朵가 넓고 짧은 便이다. 顔容은 兩眉間에 白毫相이 있었던 바  
지금은 圓孔痕跡만이 남았고 眉線, 兩眼, 鼻梁, 口唇 모두 磨損이 甚하  
여 元來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大體로 慈悲心이 흐르는 豐滿相의  
表現이다. 頸部는 三道가 있고 通肩衣에 衣紋이 勁健하다. 兩肩으로 부  
터 數條 斜線을 그린 옷주름이 안쪽으로 向하여 胸部에 V字形으로 交叉  
되었고 이것이 兩腕에서 屈折하여 다시 數條斜線을 그린 옷주름이 밖으  
로 反하여 兩袖部를 形成하였다. 兩袖 가운데로 帶文이 보인다. 結跏趺  
座하고 兩手를 모아 智學印을 結하였으니 所謂 金剛界의 大日如來의 表  
像으로 毘盧舍那佛이라 하겠다. 衣紋, 胸裸, 兩手의 流麗하고 精巧를 다  
한 彫刻手法이 注目되며 樣式上 麗代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實測值(cm) 總高 九〇 膝幅 七五

## 竹山 南山의 石塔·石佛

崔 成 鳳

백스르 竹山에서 下車 南으로 약 一km 地點 長院里 뒷山 一帶가 南  
山이다. 山의 東麓서 西에 걸쳐 「內里」·「장자터」·「탑골」·「큰골」의  
順으로 石塔三基와 石佛三座(二佛은 現竹山面事務所內에 搬出安置되어  
있음)가 散在하고 있다. (이미 竹山에 對한 佛蹟 및 遺物調査는 六二年  
度에 한 바 있다. 考美二卷 七號 參照)

### 一、內里石塔

塔은 마을 東편 亭子가 있는 小公園에 位置하며 五層으로 推定되나 現  
存 三層이다. 臺石위에 四級の 屋蓋받침으로 된 三枚의 各屋蓋石의 一  
邊은 一·九, 八九cm 六八cm이며 總高 二m이다. 塔身은 二個이며 初層  
塔身의 高는 二〇cm 幅 五〇cm로 幅 八cm의 隅柱로 되었다. 手法은 近處

梅谷里石塔과 同様이며 高麗作品으로 보여진다.

『此塔의 原位置는 現位置에서 東으로 五〇〇m 地點에서 出土한 것이며 一九三三年頃 이곳으로 運搬再立한 것이라함』(當時直接作業人 內里李世宰氏 말 六〇歲) 出土地點이 注目된다.

二、장자터탑

內里에서 西로 작은 고개 하나 너머 二〇〇m에 現長院里里長 李廷鈺 氏 집 울안 우물가에 있다. 『原位置는 日帝時 現장터에서 出土한 것이라 하며 그 주변에 두검으로된 술잔모양의 鎡器가 한별 出土되었다고 하며 塔속에 놓아둔 것이 紛失되었다고함』(李廷鈺氏 말)

塔은 現存 三級の 屋蓋받침으로된 三葉의 屋蓋石을 塔身없이 거꾸로 하여 甲石위에 쌓아 올렸다. 塔上部에는 洋灰로 洗面器를 만들어 놓았다. 各屋蓋石의 一邊은 七〇cm, 五八cm 五五cm이며 甲石의 一邊은 九五cm로 總高 八〇cm이다. 塔주변에 많은 塔材들이 散在하고 있다. 高麗 作品으로 보아지며 出土鎡器의 紛失은 注目된다.

三、탑골탑

장자터에서 西로 약 五〇〇m 地點 언덕에 原位置가 分명한 그대로 保存되고 있으나 아깝게도 塔은 完全히 倒壞되어 屋蓋石 塔身등이 거의 埋沒狀態로 주변에 散在하고 있어 原狀復舊가 의문이다.

獨立性있는 位置와 規模등으로 보아 三塔中 으뜸이다.

現狀은 塔基部의 上臺中石以下는 埋沒되어 알 수 없으나 四枚中石은 原狀이 保存되고 있으며 幅이 一·四八m 그 위에 上臺甲石이 東便으로 비스듬히 걸쳐져 있고 周邊에 屋蓋石이 一, 塔身이 二, 其他가 五로 되어 있다.

甲石은 二重屋身과임이 있고 一邊이 一·六八m 屋蓋石은 四級屋蓋받침으로 一邊이 一·二m 塔身은 一〇cm의 隅柱를 가지며 高七八cm 幅七八cm이다.

五層으로 推定되나 仔細히 알 수 없고 高麗作品으로 보아지며 手法이 우수하다.

四、큰石佛

탑골 石塔에서 西

로 稜線넘어 골짜기 밑가운데 高 一·二m의 佛頭를 잃은 石佛 一座가 있다. 下部가 埋沒되어 있고

初斷된 佛首直徑은 二〇cm이다. 그 옆에 座臺로 推定되는 圓形臺石이 있다.

臺石은 二重蓮紋을 들렸으며 高三〇cm이며 上面中心部에 三六×三〇cm의 구형이 파여져 있다.

『이 곳에 그 외 石佛 像 二座와 臺石이 있었는데 佛像은 日帝 時面所로 運搬 安置 하고 그中 臺石 一개(?)는 現在 內里 尹今昌氏宅에 있다』(內里 尹今昌氏 말)

五、面所의 石佛 二座

二座가 나란히 面所 東에 安置되어져 있다. 其一은 如來像으로 보이며 高一m로 手法이 우수하다. 其二는 光背가 있으며 高九〇cm이며 二座 모두 坐佛이며 高麗佛로 推定된다.

資 料

